



육계 계열화 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

하림 VS 양계협회 끝장토론... 하지만 입장차는 여전

편집부

국내 계육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육계 계열화 사업에 대한 끝장토론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양계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용 의원 주최로 열렸다.

‘육계 계열화 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과 관련 같은 사안을 두고 하림과 양계협회가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펴다가 시간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김학원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주)하림 측에서는 김홍국 회장과 정문성 전무가, 양계협회 측에서는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이 참석해 오후 2시에서부터 7시가 다 되도록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홍재 위원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하림의 상대평가와 계약 내용의 문제점, 사육비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홍국 회장은 하림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지난 1999년 대비 2010년 농가 조수의 증가율이 125%로, 하림 농가의 순수익은 2004년 4천3백만원에서 2009년 5천9백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하림농가와 일반 농가와의 소득격차가 2004년 3.6배에서 2009년 6배로 크게 벌어지는 등 육계 계열화사업이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얘기됐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살펴보자.

정부정책자금 금리 7.5%의 높은 이자를 받는다?

이준동 회장 : 지난 국정감사 때 하림에서 정부정책자금을 3~4%대의 낮은 이율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만 해도 1,270억원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게는 7.5%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김홍국 회장 :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정책자금의 경우는 도계장 건설 등 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이 자금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계열농가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의 경우 하림은 단지 희망 농가를 선정해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할 뿐 자금 용자는 해당농가가 지정한 농·축협을 통해 직접 농가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하림이 7.5%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다만 계사 신축농가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책자금이 시설개선 투자비용의 50%에 불과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회사는 부족한 시설개선자금을 신용대출에 준하는 조건으로 7.5% 이자로 선급금 지원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부연 설명하자면 최근에 설립한 에코케피탈은 하림 농가협의회 회장단이 미국 농업은행을 현지 방문해 벤치마킹한 부분을 바탕으로 시작했으며 신축농장에 대하여 농협 등 제1 금융권에서 1차 담보대출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해당 농장을 2차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는 금융 시스템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수입닭고기 사용 하림이 가장 많이 쓴다?

▲이준동 회장 = 현재 수입닭고기를 하림이 가장 많이 쓴다. 국정감사에서는 1%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계열농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FTA가 되더라도 계열업체들은 답답하지 않다.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중소기업이다. 농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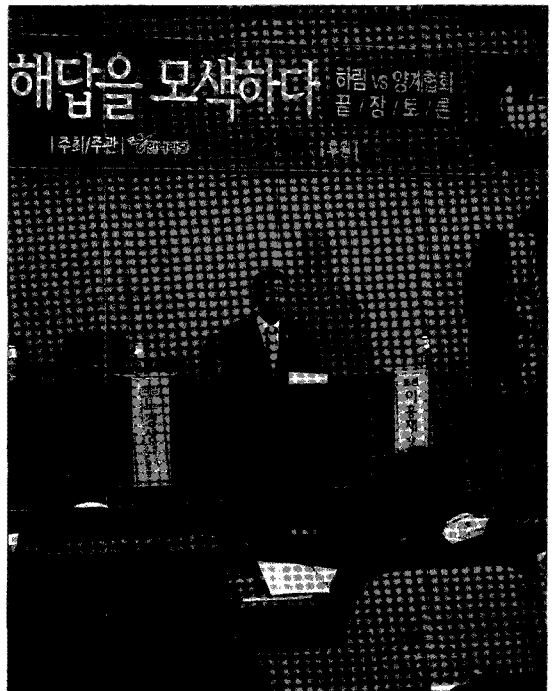
▲김홍국 회장 = 하림이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걸 확인해보면 다 나온다. 수입업체는 수입육을 매출의 대부분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하림은 다르다. 수입육은 어디까지나 '구색 맞추기'를 위한 것이며 그나마 대형 외식업체 등에서 수입육 원료를 요구하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산 닭고기를 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 사용량도 1%의 미미한 수준이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홍재 위원장 = 하림은 현재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의 성적에 의해 소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사료와 병아리의 균일한 품질 확보가 어려워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를 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절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출하중량, 사료사용량 산출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정산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농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불신도 조장되고 있다. 더욱이 출하성적 계산 방법이 복잡해 농가가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열화 사업 확대시 생산자 중심의 조합을 육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육계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특히 계열화 사업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김홍국 회장 = 상대평가는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상대평가하에서는 사료, 병아리 품질과 기후, 온도, 습도, 질병의 리스크를 회사가 직접 부담한다. 사료, 병아리 등 원자재 품질 개선과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상·하위 농가 간의 소득 편차를 꾸준히 줄어나감으로써 수익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평가제도는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사양관리에 대한 농가 간 선의

의 경쟁은 물론 시설개선 노력을 유도,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정문성 전무 = 하림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사육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뒷받침해 왔으며 투기성이 강하던 닭 사육업을 안정성이 확보된 닭고기 산업으로 발전시켜왔다.

하림 육계농가의 1999년 연평균 조수익이 4천7백만원에서 2010년 상반기 1억6백만원으로 99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홍재 위원장 : 하림에서 자꾸 조수익을 논하는데, 조수익을 따지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농가가 얼마나 수익이 되지 않으면 큰 빚을 지면서까지 사육규모를 늘리겠냐. 또 지난 20년간 기본 사육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사육경비도 연료비는 70%, 약품비는 80%, 깔집은 40%만 지급하고 전기료와 깔짚 청소비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수익 증 상당액은 농가의 비용 지출로 사라지게 된다.

▲정문성 전무 : 농가 조수익에서 사육경비를 제외한 농가 순수익면에서도 1999년 3천1백만원이던 것이 2010년 6천9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122% 상승했다. 수당 사육비 역시 1999년 317원에서 2010년 6월 421원으로 104원(33%)이 증가했다.

특히 하림은 닭고기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이 계열주체에 의해 통합 관리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최종 소비제품의 위생 안전과 품질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소비형태 변화와 요구에 따른 제품 다양화 등으로 750종의 닭고기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0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육계 계열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농가 사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상금에 대하여 100% 탕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무리한 항생제 사용요구를 억제하고 있다. 천재지변, 화재사고, 전기사고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축공제를 전체농가가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하림은 최소 사육비 지급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및 도산농가 '제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농가협의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소통문화'를 구축하고 있다.